

대법원 2024도1929, 2024보도8(병합) 살인미수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협박 및 스토킹하고, 이후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내리치고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15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몰수, 보호관찰명령 5년)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4도1929, 2024보도8(병합)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사건의 개관

▣ 배경사실

-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여, 30세)와 2020. 7.경부터 교제한 사이로 2023. 1. 말경부터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피고인의 사채, 도박 채무 문제로 2023. 2. 17.경 결별함

나. 공소사실의 요지

▣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 피고인은 2023. 2. 23. 부산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주거지 내로 들어감

-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목을 그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자 다시 그곳에 있던 가위로 자신의 손목을 그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했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 휴대전화로 “너 내 전화 차단했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2. 24.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주거 및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함

■ 살인미수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부당하고 스토킹범죄로 신고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됨
- 피고인은 2023. 3. 2. 몽키스패너와 식칼을 구입하여 휴대한 후 피해자의 직장으로 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고, 예정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피해자에게 “연락 꼭 받아라.”라고 말한 후 몽키스패너와 식칼을 경찰서 인근에 버림
- 피고인은 그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연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앞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말라.”는 연락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몽키스패너와 식칼을 다시 주워 피해자를 만나러 감
- 피고인은 그날 피해자의 직장 마당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불러내 경찰에 피고인이 찾아온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계속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몽키스패너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쳐 몽

키스패너가 튕겨 나가자 계속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직장동료들로부터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외상성 간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

▣ 특수상해

- 피고인은 위 살인 미수 범행을 제지하던 남성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식칼을 사수할 목적으로 앞, 뒤로 흔들며 남성 피해자의 좌측 중지 부위를 베어 상해를 가함

2. 소송경과

▣ 제1심 : **유죄**(징역 15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몰수, 보호관찰명령 5년), 부착명령청구 기각 ➡ 쌍방 항소(피고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 검사: 양형부당,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 원심: 피고인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

▣ 피고인만 상고(검사 상고 X)

-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임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 원심의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피고인의 상고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